

박선호 1차관, “건설일자리로 혁신성장 견인” 강조 - 29일 안양공고서 실습훈련 참관...건설명장 향한 꿈 격려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(화) 안양공업고등학교*를 방문하여 거꾸집 설치, 측량, 드론 교육 등 실습훈련을 참관하고, 건설관련 학과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.

* 교장: 김태갑, 안양시 소재, 4개 학과 689명 재학

- 건설업이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 속에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며 건설현장의 고령화*와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부족 문제**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은,

* '19년 5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(52.8%)

** 건축현장의 형틀목공(33%)·철근공(31%) 등에서 외국인력비중이 높음(건설협회)

-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여건을 살피고 미래 건설산업을 책임질 건설기능인력 지망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- 안양공고는 개교 이래 57년간 건축·토목학과를 운영하면서,

* '19년 건축토목과 167명 재학 중 : (1학년) 39명, (2학년) 50명, (3학년) 78명

- 기능장 등을 초빙한 훈련 등 내실 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국내 각종 기능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 청년 건설인력을 육성·배출하고 있는 모범적인 특성화 고등학교로 평가받고 있다.

- 박선호 차관은 건설업체 취업을 앞둔 3학년 졸업 예정자 등 안양공고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,

- “튼튼하고 멋진 건축물을 내 손으로 만드는 전문 건설기능인의 길을 걸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.”라며,

- 또한, “우리 건설산업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야한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, 적정임금 지급, 근로환경 개선, 경력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.”라고 말했다.
- 끝으로 박 차관은 학생들에게 “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주택, 도로, 철도 등 모든 기반시설(인프라)이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며,
 - “미래 건설 명장(明匠)을 선택한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2019. 10. 29.